

公園綠地 管理行政主體의 意識構造 研究

—서울市를 中心으로—

朴律鎮* · 金東贊**

* 慶熙大學校 大學院 造景學科 博士過程

** 慶熙大學校 造景學科 教授

A Study on the Conscious Structure of Park & Open Space Managers and Administrators - In the Case of Seoul -

Park, Yool-Jan* · Kim, Dong-Chan**

* Graduat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executed to find out necessities of park & open space management, its policy, its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personnel management. To get objective and basic materials for this study, conscious structure of practical level members in Seoul is analyzed by means of questionnaire sheet and ANOVA analysi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various related factors ; quality upgrading of management of park & open spac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ntensification of user service, and orientation of self administration. As a result, we should restructure the park system and policy in order to enhance recognition toward the necessities of park & open space. And we could suggest regional specialization of district autonomy area as an alternative strategy.

I. 序論

公園綠地를 체계적으로 많이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 조성된 公園綠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계획된 公園綠地의 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부응하여 도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될수록 公園綠地는 도시의 건전한 발달도모와 공공의 안녕질서 및 공공복리의 증진, 그리고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증대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자의 균형이 이루어지기는 희박하다. 그 이유는 안정된 管理制度가 미흡하며, 장, 중, 단기적계획 수립에 있어서 상호 보완성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행정력의 분산,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수렴 부족, 전문성 있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등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문제점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管理制度 개선과 관련된 서울지역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사례를 보면, 서울시(1985)에서 公園綠地 政策方向 研究로서 法規, 政策, 管理組織 資源調査, 利用實態를 종합분석하였으며, 또한 朴(1985)은 公園綠地 法規와 管理組織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기획기능 및 위락부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鄭(1985)은 公園行政組織의 개편방안 연구에서 기능, 관리인력 등을 분석하여 외국의 대도시와 비교하였다. 金(1991)은 都市綠地의 管理體系와 改善方案에서 녹지효용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제고로 투자분위기와 영역확대를 논하였으며, 金과 朴(1993)은 公園綠地造成 실태를 분석하면서 관련 법규정비, 行政體系의 개편, 이용제고를 위한 綠地造成, 재원확보의 改善方案을 제시하였으며, 朴(1994)은 公園綠地 制度의 부서별 변천과정 시대별로 분석하였으며, 洪(1994)은 都市公園綠地에 마케팅 개념 도입을 제시하였으나, 公園綠地 관련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의 管理行政에 대한 意識構造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

본 研究에서는 管理行政主體에 대한 정의들은 시대나 대상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접

근이 가능하겠으나 우리의 실정은 市, 區, 洞과 같은 行政廳이 주된 管理主體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은 都市公園綠地를 관리하는 행정부서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都市公園綠地의 管理制度에 대한 관리부서간의 管理組織診斷을 研究하고자 하며, 管理制度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작성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II. 研究方法

1. 調査方法

본 조사는 1994년 7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시 都市公園綠地 관리부서의 본청, 구청, 사업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설문지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標本單位의 추출방법은 조사대상중에서 母集團을 잘 설명해 주리라고 판단되는 집단을 선정 한 후 被調査者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標本單位의 추출은 직접 관리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배부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며, 설문지 총 350부를 배부하였고, 이중 284 부를 회수하여 약 81%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284부 중 응답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25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分析方法

본 都市公園綠地 管理行政主體의 意識構造 研究는 구성원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하였는데 분석도구는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상기의 분석도구는 기본적으로 頻度分析에 의하여 피험자의 人口統計學的特性을 분석하고, 피험자가 소속된 부서별로 구분된 집단들이 각 문항에 대한 집단간의 동일성 여부를 알기 위해 分散分析(ANOVA)을 실시하였다.

Ⅲ. 結果 및 考察

1. 人口 統計學的 特性

피험자의 일반적인 人口統計的 特性으로는 성별, 연령, 근속년수, 근무부서, 직종, 직종전공, 직급 등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人口統計學的 特性

區 分	頻度	比率	區 分	頻度	比率
性 別	남 자 246	95.3	職 種	林業職 173	67.1
여 자 12	4.7	行政職 33		12.7	
年 齡	32以下 57	22.1		機能職 41	15.9
	33-37歲 64	24.8		其他 11	4.3
	38-42歲 66	25.6	職 級	5級以上 12	4.7
	43-47歲 52	20.1		6級 56	21.7
48歲以上 19	7.4	7級 79		30.6	
職 種 專 攻	專 攻 73	28.3		8級 61	23.6
	非 專 攻 185	71.7		9級以下 50	19.4
勤 務 部 署	本 廳 21	8.1	勤 續 年 數	5年以下 52	20.2
	區 廳 177	68.6		6-10年 66	25.6
	事 業 所 60	23.3		10-15年 65	25.2
				16年以上 75	29.0

총 258명 중 남자가 246명, 여자가 12명으로 서 남자가 약 95%의 분포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48세 이하의 연령층이 239명으로서 약 92%의 분포비율을, 근속년수별로는 6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206명으로서 약 80%의 분포비율을 나타내어 피험자의 절대다수가 맡고 있는 직무에 오래 근무하고 있는 활동적인 연령층의 남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무부서별로는 구청 근무자가 177명(68.6%)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직종별로는 임업직이 173명(67.1%)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직종의 전공별에서로 비전공이 185명(71.7%)으로서 공원녹지 관련 직종분야에서는 전공자의 취약성을 보여 주었다. 직급별로는 7급이 79명(30.6%), 8급이 61(23.6%), 6급이 56명(21.7%), 9급이 50명(19.4%)으로서 일선 실무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2. 管理行政主體의 意識構造 分析

1) 公園綠地 必要性 側面

公園綠地에 대한 必要性에 있어서는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본청, 구청, 사업소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이 모두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피험자 대부분이 公園綠地의 必要性에 대해서는 일치된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公園綠地가 보건과 휴양의 장소(x5), 오염 및 공해방지(x8), 선진국의 바로미터(x3)라는 점에서 公園綠地의 必要性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2> 公園綠地 必要性에 대한 ANOVA 分析

公園綠地 必要性	本 청 (n=21)	구 청 (n=177)	事 業 所 (n=60)	value	평균값이 큰 집단
도시민들에게 필요(x1)	2.929	2.972	2.954	-0.29	구 청
쾌적한 환경/도시생활(x2)	2.461	2.325	2.313	0.13	本 청
선진국의 바로미터(x3)	3.700	3.844	3.891	-0.97	事 業 所
도시내의 필요성(x4)	2.899	3.000	2.913	-0.68	구 청
보건과 휴양의 장소(x5)	3.390	3.397	3.381	-0.05	구 청
자연환경보존/도시경관(x6)	2.721	2.703	2.701	0.15	本 청
도시환경의 중요역할(x7)	3.252	3.101	3.012	1.01	本 청
오염/공해방지(x8)	3.890	3.898	3.799	-0.07	구 청
도시민의 욕구 충족(x9)	2.237	2.169	2.103	1.14	本 청

* : P<.05, ** : P<.01

2) 政策役割 側面

公園綠地의 管理計劃 및 執行計劃과 관련된 政策役割에 대해서는<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청과 구청, 사업소간에는 전 변수에 걸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 3>은 각 부서별로 政策役割에 대한 변수와 평균값 순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본청과 구청 근무자와의 政策役割에 대한 인식은 사회변화 적응(x14)과 정책 운영 사항 숙지(x18) 변수의 순위만 다를뿐 평균값의 순위는 동일하여 본청과 구청 근무자의 政策役割에 대한 인식이 유사함을 알 수가 있었다. 반면에 사업소 근무자는 타 부서 근무자에 비하여 물리적 계획치중(x16), 단편적/비현실적(x15) 변수 등에 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평균값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소가 기능상

단독업무처리 성격이 강하며, 公園綠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특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본청, 구청, 사업소등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公園綠地의 政策役割이 덜 효과적이며(x11), 물적계획에만 치중하고(x16) 운영 프로그램은 미흡할 뿐만 아니라(x17) 단편적이고 비현실적이며(x15), 政策計劃 자체가 부실하다고(x13)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政策役割에 대한 ANOVA 分析

政策役割	본 청 (n=21)	구청 (n=177)	사업소 (n=60)	value	평균값이 큰 집단
운영 구체적(x10)	3.162	3.396	3.501	3.02**	사업소
정책계획의 효과적(x11)	2.691	2.987	2.703	-3.83**	구청
정책계획부실(x13)	2.003	2.344	2.741	5.10**	사업소
사회변화 적응(x14)	4.75	3.823	3.518	-4.42**	본 청
단편적/ 비현실적(x15)	1.940	2.196	2.817	0.95**	사업소
물적계획 치중(x16)	2.178	2.513	2.910	4.25**	사업소
시설활용위한 프로그램(x17)	2.401	2.700	2.843	3.68**	사업소
정책과 운영사항 숙지(x18)	4.056	3.896	3.512	-0.22**	본 청

. * : P<.05, ** : P<.01

〈표 4〉는 각 부서별로 政策役割에 대한 변수의 평균값 순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각 부서 공히 사회변화적응(x14), 정책과 운영사항의 숙지(x18) 및 구체적 정책운영(x10)이 필요로 함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政策役割의 변수에 대한 부서별 인식 순위표

부서 \ 인식순위	1	2	3	4	5	6	7	8
본 청	X14	X18	X10	X11	X17	X16	X13	X15
구청	X18	X14	X10	X11	X17	X16	X13	X15
사업소	X14	X18	X10	X16	X17	X15	X13	X11

서울시의 公園綠地 施策方向은 설정되어 있으나〈표 5〉 구체적인 事業執行計劃과 財源的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는 점도 그와 같은 인식에 일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시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公園綠地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公園綠地 예산은 예산책정시 다른 부문에 비해 우선 순위에 있어서 훨씬 뒤지

〈표 5〉 公園綠地 施策方向

區分	基本方向	力點施策
公園	· 未施設 公園 開發 · 都心地 公園 擴充 · 公園施設의 質的 水準 向上	· 地域간 均等 開發, 民資開發誘導 · 施設 移籍地 公園化 · 都心 再開發時 充分한 公園 確保 · 國際, 歷史, 文化都市로서의 面貌 具備
綠地	· 市民이 아끼며 休養 할수있는 山林育成	· 無節制한 開發로부터 綠地의 保護 · 風致林 造成으로 景觀水準 向上 · 自然災害및 人爲的 山林毀損 豫防 · 鳥獸의 保護 繁殖을 통한 自然回復 · 市民이 쾌적하고 견고 설수 있는 綠地 空間 確保 · 600년 古都의 아름답고 품위있는 都市 景觀造成 · 多樣한 造景素材의 開發과 施設 管理 體系의 現代化

자료 : 서울시 94 主要業務計劃推進指針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6〉는 90 - 94년에 걸쳐 서울시의 公園綠地에 대한 투자재원 배분에 있어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公園綠地의 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다각적이면서 현실화 할 수 있는 政策의 구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의 강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 部分別 投資財源配分 構成比(%)

區 分	90年	91年	92年	93年	94年
道路·交通	26.9	32.5	30.6	40.4	48.2
庶民住宅建設	31.9	24.5	27.4	16.2	13.1
맑은물 供給	7.0	8.8	9.3	9.6	7.7
治水·消防	2.5	2.5	3.5	3.3	2.3
低所得生活保護	3.9	4.3	4.9	5.3	4.5
清掃·環境 産業	3.6	4.7	4.4	4.6	5.2
公園綠地	3.0	2.2	1.9	1.7	1.5
教育·文化·體育	6.2	5.6	4.8	5.6	5.0
一般行政	3.0	2.3	1.9	2.2	2.1
選舉및 議會運營	0.2	0.2	0.2	0.2	0.1
自治區 支援	11.3	11.9	10.7	10.3	9.4
豫備費	0.5	0.5	0.4	0.6	0.8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서울시 90 - 94 豫算概要 에 의해 작성

3) 組織構造 側面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組織構造에 대한 11개의 변수중 정책규정위반(x22)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청, 구청, 사업소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본청 근무자의 경우 자체업무에 대한 만족도(x24)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견수렴계획(x27), 부서간의 협조(x21)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책이나 규정의 준수(x22)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인식하였다. 구청 근무자의 경우에는 원활한 行政力의 구사(x19)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체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x24)도 높았으며, 정책이나 규정의 준수(x22)도 달리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옥외여가활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x28)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組織構造에 대한 ANOVA 分析

組織構造	본청 (n=21)	구청 (n=177)	사업소 (n=60)	value	평균값 큰집단
원활한 행정력(x19)	2.639	2.889	3.022	-4.18**	사업소
부서간의 능률성(x20)	2.755	2.481	3.010	2.53*	사업소
부서간의 협조(x21)	2.907	2.517	2.733	3.19**	본청
정책/규정준수(x22)	2.251	2.765	2.933	0.42	사업소
업무의 다양성(x23)	2.473	2.262	2.145	-2.94**	본청
자체의 업무만족(x24)	3.249	2.774	2.514	-6.68**	본청
이용시민위한 담당기구(x25)	2.729	2.374	2.903	2.63**	사업소
적극적 홍보활동(x26)	2.819	2.584	3.120	2.70**	사업소
의견수렴계획(x27)	3.051	2.734	3.381	2.69**	사업소
옥외여가활동 서비스제공(x28)	2.581	2.216	2.819	2.81**	사업소
도시민의 욕구충족(x29)	2.595	2.418	2.037	-2.39*	본청

* : P<.05, ** : P<.01

사업소 근무자의 경우에는 의견수렴계획(x27)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x26)과 원활한 行政力 구사(x19)에 있어서도 높게 나타난 반면에, 도시민의 욕구충족(x29)에 있어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組織構造에 대한 변수 각각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본청이나 사업소의 경우보다 구청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 바, 이것은 일선 공무원

지과의 과다한 업무량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전문인력 및 기능인 관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변수 각각에 대한 평균값의 순위를 근거로 하여 본청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표 8> 참조)

자체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X24), 본청과 구청의 경우 각각 1순위, 2순위일 정도로 높았으나, 사업소의 경우에는 11개 변수중 8순위에 해당될 정도로 낮아 사업소 근무자들의 자신의 업무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매우 커 이에 대한 시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의견 수렴계획(x27)은 본청과 사업소에서는 각각 2순위, 1순위였으나 구청은 4순위로 보통 정도였다. 부서간의 협조(x21)는 본청은 상위, 구청은 중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소의 경우에는 협조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홍보활동(x26)과 부서간의 능률성(x20)은 본청과 구청의 경우 보통 수준이었으나, 사업소의 경우 매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용시민을 위한 담당기구(x21)에서는 본청과 사업소의 경우에는 보통수준이었으나 구청의 경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對民 行政體系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어졌다. 원활한 行政力(x19)에 있어서는 구청의 경우 1순위에 해당될 정도로 강한 것으로 인식 되어졌으며, 사업소의 경우에 3순위로 나타났으나, 본청의 경우에 行政力 구사에 다소 처지는 것으로 나타남은 일선 구청이 사업소와 본청보다 직접적으로 대민 행정 수행시 현실적인, 행정구사가 필요함이 인식되어졌다.

도시민의 욕구충족(x29)이나 옥외여가 활동 서비스 제공(x28) 또는 업무의 다양성(x23)에 있어서는 본청, 구청, 사업소, 모두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 도시민의 욕구에 부합하고 대민 서비스 차

<표 8> 組織構造의 변수에 대한 부서별 인식 순위표

부서\인식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본청	X24	X27	X21	X26	X20	X25	X19	X29	X28	X23	X23
구청	X19	X24	X22	X27	X26	X21	X20	X29	X25	X23	X28
사업소	X27	X26	X19	X20	X22	X25	X28	X21	X24	X23	X29

〈표 9〉 公園綠地 本廳 組織構造의 主要變遷

日 字	根 據	主 要 內 容	部 署			備 考
			局	課	係	
63. 8. 16	시훈령 160호	建設局 土木課(公園係) 신설			1	
65. 6. 14	규칙 483호	(公園係→公園施設係) 개칭			1	
66. 1. 31	규칙 530호	産業局 山林課→綠地課 개칭 (林政, 公園, 砂防造林, 保護係)		1	4	확 대
67. 7. 31	조례 733호	産業局 綠地課 係名 개칭(林政, 公園管理, 公園開發, 造林保護係)	1	1	7	개 칭
73. 6. 8	령 6724호	綠地局신설, 綠地課(林政, 砂防造林, 保護係), 造景課(造景1, 造景2係) 公園課(公園管理, 公園開發係)	1	3	7	확 대
79. 3. 26	령 9631호	綠地局→公園綠地局 개칭	1	3	7	개 칭
81. 11. 9	령 10628호	環境局+公園綠地局→環境綠地局 신설, 造景課, 綠地課, 公園課 → 公園綠地課(綠地行政, 造景, 綠地保護, 公園管理係)로 통폐합	1	3	4	축 소
83. 4. 22	령 11107호	公園綠地課→公園課와 綠地課로 분리	1	2	4	분 리
89. 11. 1		環境綠地局 造景課(造景企劃, 造景 管理係)신설	1	3	6	확 대
91. 7. 6	조례 2816호	環境綠地局 폐지→都市計劃局으로 편입(公園, 綠地課), 造景課 폐지→ 綠地課에 흡수	1	2	6	축 소

원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업무의 단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 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 규정의 준수(x22)는 구청과 사업소에 있어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청의 경우에는 최하위에 속할 정도로 낮아 정책/ 규정의 준수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안목을 보여 주어 사문화되고 있는 정책/규정의 많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公園綠地와 관련된 組織構造가 행정 편의적 발상에 의하여 축소와 확대를 반복했음을 알 수가 있다. 組織改編이라는 것을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시민의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했으나, 公園綠地의 組織構造는 다분히 정부내 조직간의 역학관계로 인하여 수동적으로 개편되어져 왔었다.

이와 같은 組織改編은 필연적으로 불안정한 組織構造를 나타내게 됨으로 해서 전반적인 公園綠地 管理行政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날로 더해가는 시민들의 公園綠地에 대한 의식수준의 향상과 수요증대에 따라 미래 지향적이며, 합리적이

고 체계적인 組織構造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구성원의 士氣昂揚과 능력개발 및 대민 서비스 체제 구축 등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해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人事管理 側面

人事管理 側面에 대한 본청, 구청, 사업소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6개의 변수중, 기능 인력의 부족(x31) 행정의 전문인력(x33), 인재확보 곤란(x37) 등 3개의 변

〈표 10〉 人事管理에 대한 ANOVA 分析

人事管理	본 청 (n=21)	구 청 (n=177)	사업소 (n=60)	value	평균값이 큰집단
기능인력의 부족(x31)	3.420	3.109	3.311	3.72**	본 청
업무배치의 효율성(x32)	3.142	2.997	2.765	1.72	본 청
행정의 전문인력(x33)	2.969	2.777	2.516	2.49*	본 청
직무동기부여(x36)	2.750	2.630	2.977	1.38	사업소
인재확보 곤란(x37)	3.190	3.000	2.831	2.17*	본 청
구성원 근무의욕(x38)	2.920	2.842	3.053	0.87	사업소

* : P<.05, ** : P<.01

수에서만 나타났다.

본청 근무자의 경우 기능인력부족(x31)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구청이나 사업소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것으로서 배치된 인력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함을 나타내 보였다.

반면에 직무동기 부여(x36) 면에서는 변수중 가장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타성적 내지 비효과적인 측면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사업소 근무자의 경우는 다른 부서와 같이 기능인력 부족(x31)을 제일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의 전문인력(x33) 면에서는 변수중 가장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 각각에 대한 평균값의 순위를 근거로 하여 본청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표 11> 참조)

<표 11> 人事管理의 변수에 대한 부서별 인식 순위표

부서\인식순위	1	2	3	4	5	6
본 청	X31	X37	X32	X33	X38	X36
구 청	X31	X37	X32	X38	X33	X36
사 업 소	X31	X38	X36	X37	X32	X33

기능인력의 부족(X31)은 세 부서가 동일하였으며, 인재확보 기관(x37)은 본청과 구청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소의 경우에는 다소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소의 경우 인재수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배치의 효율성((x32)은 본청과 구청의 경우에는 보통 수준이었으며, 사업소의 경우에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전문인력(X33)은 사업소, 구청, 본청 순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관리의 전문성이 세 부서 모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 근무의욕(x38)은 본청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구청이었으며, 사업소의 경우는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소가 근무의욕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 동기부여(x36) 역시 본청과 구청은 최악

의 상태이나, 사업소의 경우는 다소 사정이 나은 편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내용으로 보면, 세 부서 모두 인력부족이 최고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어 향후 人事管理의 최대과제가 적절한 양의 인력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人事管理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승진적체현상을 해소하고 하급 직원에 대한 사기를 높이기 위해 책임에 상응한 권한부여와 공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개선 및 공정한 人事運營制度의 확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표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公園綠地 관련 職種(林業職) 신규임용은 분구에 따른 기구 신설과 자연 감소에 충당하는 실정이고, 교육훈련은 신규임용 및 승진을 위한 기본교육으로 본래의 직무수행능력배양 및 자질 향상의 목적에 미흡한 실정이다.

<표 12> 公園綠地 관련 職種(林業職) 신규임용 및 교육훈련 현황

95. 7. 말. 현재

구 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신규임용	5	19	13	30
교육훈련	38	53	87	50

IV. 結論

본 연구는 都市公園綠地 管理行政에 대한 실무자의 意識構造를 研究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事例分析(case study)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公園綠地의 必要性 側面에서는 본청, 구청, 사업소등의 부서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이 모두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公園綠地가 보건과 휴양의 장소, 오염 및 공해방지 선진국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2. 政策役割 側面에서는 부서간에 8개의 모든 변수에 대하여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사업소의 실무자들이 다른 부서의 실무자들 보다 비판적인 의식을 보였는 바, 公園綠地의 政策役割이 단편적이고 비 현실적이며 물적계획에 치중되어, 政策計劃 자체가 부실하다고 인식하였다.

3. 組織構造 側面에서는 11개의 변수중 政策 및 규정준수라는 변수 이외는 부서간에 모두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세 부서 모두 의견수립계획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업무가 다양하지 못하고 도시민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 시키지 못하는 組織構造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였다.

4. 人事管理 側面에서는 6개의 변수중에서 기능인력의 부족, 행정의 전문 인력, 인재확보 곤란 등 3개의 변수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본청과 구청의 실무자들은 대동소이한 인식내용을 나타낸 반면에 사업소의 경우는 근무의욕과 직무 동기부여 면에서 다소 나은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세 부서 모두 인력부족을 최대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公園綠地의 政策이 hard ware 측면에만 치중 할 것이 아니라 運營프로그램등의 soft ware 쪽에도 배려하면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탄력성을 지닌 組織構造로서 시민의 욕구와 관련지워 公園綠地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도 원활하게 組織構造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고도 적절한 인력의 수급이 지원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1. 金貴坤(1994), 「都市公園綠地의 計劃 設計論」, 서울大學校 出版部 : 1-19.
2. 金東贊, 朴律鎮(1993) 「公園綠地의 合理的인 造成과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食糧資源開發研究所 研究論文集」, 第14輯, 慶熙大學校 食糧資源研究所 : 96-109.
3. 金東必(1994), 「都市公園의 管理體系와 管理主體의 意識構造 및 滿足豫測模型」,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4. 金 實(1991), 「都市綠地의 管理體系와 改善方向」, 「都市山林 環境 심포지움 자료집」, 韓國造景學會 : 110-143.
5. 朴光國(1985), 「서울市 公園行政 體系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6. 朴容栽(1994), 「서울市 綠地 管理制度의 變遷過程」, 「94林科大學 심포지움」, 都市林의 役割과 改善方案, 서울大學校 林科大學, 科學研究所 : 24-39.
7. 三星經濟研究所(1993), 「行政部의 效率化 方案」.
8. 서울市(1985), 「서울市 公園綠地 政策方向 研究」.
9. " (1993), 「서울特別市 職制 規定輯」.
10. 鄭弘益(1985), 「서울市 公園行政組織의 改編方案」, 서울大學校, 「行政論叢」, 第2號 : 143-162.
11. 蔡瑞一(1990), 「社會科學 調查方法論」, 法文社 : 275-295.
12. 韓國造景學會(1986), 「造景計劃學」, 文運堂 : 157-158.
13. —————(1990), 「造景管理學」, 文運堂 : 2-25.
14. 韓國行政研究院(1992), 「行政의 能率性 提高를 위한 基本틀 構築」.
15. 洪性權(1994), 「서울市 公園綠地政策의 方向과 公共: 民間部分의 役割分擔」, 「韓國造景學會」, 22(3) : 175-183.
16. 白幡洋三郎外1人(1990), 「都市公園 行政의 現狀と展望」, 「造園雜誌」, 53(3) : 178-183.
17. Kraus, Ricard G. (1983), *Creative administration in Recreation & Parks*, Saint Louis, The C.V. Mosby Company.